

장흥 득량만 연안 불법 낙지통발 어업 극성

타지역 어업인들 가세 새꼬막 성패 폐사 등 어장 황폐화 폐통발 불법 투기로 바다 오염도 심각...장흥군 단속 전무

장흥군 연안이 마구잡이식 낙지통발어업으로 인해 새꼬막 양식장이 피해를 입는 등 어장 황폐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흥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폐양양식 적합연안으로 알려진 안양·용산·관산 앞바다에 지난해부터 고흥 등 타지역 낙지통발어업인들까지 막부기대로 진출해 어로하면서 새꼬막양식물이 대량 폐사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

어민들은 채취를 눈 앞에 둔 시점에서 지역 어민 등이 살포해 놓은 낙지통발망이 새꼬막 성패를 10여일 가량 덮치는 바람에 질서해 폐사하는 새꼬막이 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수산업법상 낙지통발망 그물코 간격도 22mm로 제한돼 있으나 이들 어민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통발은 15mm이

어서 새꼬막 폐사율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민들은 쇠살로 만들어진 통발의 크기가 날로 대형화된데다 바다에 버려진 통발이 양식장에 파묻히면서 어장 황폐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걱정했다.

어민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장흥군 관계자들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군의 무대책에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

기구편제상 담당 업무는 해양수산과가 맡고 있지만 과장을 제외한 실제 업무를 관장하는 수산전문직 팀장(6급)과 실무관급(7·8급) 없이 비전문직인 행정직 공무원들과 신규 수산직(9급)들이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장흥군 불법어업 단속 실적은 전남도와 합동 지도·단속을 제외



득량만 연안에서 벌어진 마구잡이식 낙지통발어업으로 양식장의 새꼬막이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양식어민이 채취한 새꼬막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사(왼쪽)됐다. (새꼬막양식협회 제공)

하면 자체 지도·단속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민선체제이후 이해관계로 인해 불법어업 단속에 손을 놓

고 있다"며 "불법어업 지도 단속은 해양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군은 최근 야구전지훈련팀 학부모들을 초청해 영암 농·특산물 홍보 및 문화기행 행사를 진행했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 야구전지훈련팀 학부모 초청 농특산물 홍보·문화기행 행사 '눈길'

영암군은 지난 30일 영암에서 동계 훈련중인 야구 전지 훈련팀의 학부모 30여 명과 함께 농·특산물 홍보 및 영암군 문화기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행 행사는 지난 1월 2일부터 영암에서 전지훈련 캠프를 차린 대치, 성남, 경원중학교 야구부 자녀를 따라 한 달 간 영암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전지훈련팀 학부모들은 호남 3대 명촌인 구림마을, 영암도기박물관, 군립 하정음미술관과 여름 대표 휴양지인 자연형 계곡 물놀이장인 기잔랜드 내의 김창조가야삼산조기념관과 작년 10월에 개관

한 한국트레트가요센터 방문하는 등 코스별로 마련된 남도의 맛을 즐기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영암군 농·특산물판매센터(기잔랜드)를 방문해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달마지쌀 골드, 맛과 영양이 풍부한 무화과 가공품, 쫄깃쫄깃하며 간식거리로 좋은 대봉감 말랭이, 다이어트에 좋은 영암 황도고구마 등 농·특산물을 맛보고 구매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매년 영암군을 찾아 주는 3개학교야구부에 감사드리며, 이 행사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고객관리로 평생 고객 확보와 수도권 직거래 시장 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장흥 유치면복지센터·이장자치회 '따뜻한 면민 맞이하기' 훈훈한 감동

새로 이주 다자녀가정에 백미·김치 등 전달

장흥군 유치면행정복지센터가 유치면으로 전입한 다자녀가정(부부와 5남매)에 대해 이장자치회(회장 문경열)와 함께 '따뜻한 면민 맞이하기'에 나서 훈훈한 감을 전하고 있다.

장흥군 유치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0일 행편이 어려운 J씨 가족이 유치면으로 이주해 동지를 틀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장자치회에서 백미(20kg 3포)와 김치, 생필품 등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또 서둘러 이사하느라 미처 집수리를

마치지 못해 현관과 창고에 비가 새 가족이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어서 후원자들이 나서 집수리를 약속하는 등 지역민이 한마음으로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이장자치회는 "장흥의 따뜻한 품에 안겨 밥상을 함께 하고 자녀의 교육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보급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도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봉대 유치면장은 "따뜻하게 면민으로 맞이해 주신 이장자치회에 깊은 감사



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이웃 주민과 함께 어울려 조속히 정착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연계 하는 등 생활안정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박건량 강진군체육회 초대 민선 회장 취임

강진군체육회는 최근 강진스포츠클럽센터 실내체육관에서 박건량(67·사진) 초대 민선 체육회장 취임식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취임식에는 이승욱 강진군수를 비롯해 기관·단체와 지역 인사, 체육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투명하고 활기찬 스포츠를 통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음·면 화합과 소통을 통해 체육 동호회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특히 여성부회장과 여성이사, 사무국장 등을 공모해 조직을 구성하고 남녀 균형비를 맞춰 공정한 체육행정으로 깨끗한 체육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도자기공예 기능사 양성 교육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이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주 1회에 걸쳐 도자기공예 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한다.

도자기공예 기능사 양성 교육은 강진 청자 산업의 활성화와 국가무형문화재·대한국명장 창출을 목표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다. 예비 창업자, 청자 산업 종사자, 숙련자의 전문기술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 기술자격인 도자기공예 기능사 취득을 위한 교육을 한다.

10명의 정원을 목표로 모집했으나 20여 명이 신청해 군민을 비롯한 관련 종사자의 호응이 높았다.

교육은 이론과 실기로 나누어 강진군 공예품 창작 공방에서 이뤄진다. 강진군 관계자는 "현대 트렌드에 어울리는 새로운 디자인을 융합하는 다양한 청자 제품을 개발해 소비자 구매 만족도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청자 산업의 기술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영암군, 영세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부담 덜기 '식품진흥기금 용자지원' 신청자 접수

업소당 최대 1억원

영암군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용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용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일반·휴게 음식점,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등이다. 용자금액 및 조건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최대 1억원, HACCP업소에 최대 3억원, 식품접객업소에 최대 5000만원으로 1년 거치 6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000만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금리는 시설개선자금이 연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 1%이다.

신청 자격은 영암군에서 영업 중인 식품위생업소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광주는행에서 용자 가능 여부 심사를 거친 후 영암군 청 위생팀에 용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용자지원 사업이 식품위생업소의 안전한 음식문화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신청바라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